

‘원잠건조계획’ 막판 변수 부상 대통령실 “원만히 마무리될 것”

韓美 조인트 팩트시트 지연

관세 인하·방위비 인상 등 포함
원잠 건조방법·장소 쟁점 전망
일각선 이달 중순경 발표 예상

한미 관세협상이 지난달 말 타결된 후 급방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의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이유는 통상 이슈가 아니라 원자력연료 추진 잠수함(원잠)으로 인해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최종 발표가 이달 중순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원만히 마무리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인트 팩트시트란 양국이 합의한 사실과 주요 내용을 담은 일종의 설명자료다. 합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 만큼 공식 협정이나 조약보다 간결한 형태로 작성된다.

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를 통해 대미투자(3500억 달러) 등 한미 관세·안보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발표될 팩트시트에서는 관세 15% 인하, 연간 대미 투자금 상한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굿즈 전시품을 관람하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200억달러 한도 내), 투자 수익 배분율 등이 담긴다. 또 안보 분야에선 한국의 방위비 인상, 동맹 현대화 방안을 비롯해 원잠 건조 계획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이 ‘원잠 건조 계획’으로 인해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관계부처 검토가 길어져서다. 이에 대해 최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안보 분야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서 논의가 지연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통상 무역 분야가 문제시되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현재는 새 이

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잠 건조 방법·장소 등이 쟁점인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선 원잠의 선체와 원자로는 국내에서, 연료는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 내 한화오션 소유의 ‘필리조선소’를 거론하는 등 주장이 다른 상황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는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11월 중순(10~20일) 내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외환당국 개입 가능성… “추가 상승 제한적”

원·달러 환율 급등

美 섀다운 등 시장 불안감 영향
“중·장기적으로 1400원대 유지”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에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하락)하고 있다. 미 연방정부의 섀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역대 최장기간 지속중인 가운데, 미국의 고용 불안이 위험자산 선호를 축소시켰다. 무역협상에 따른 현금 투자로 외환 흐름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원화 약세의 재료가 됐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는 1456.9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보다 9.2원(0.63%) 오른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된 4월 9일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하는 것은 미 연방정부의 섀다운이 역대 최장기간 지속중인 가운데,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10월 1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2026년도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중산층의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의 존치 여부를 두고 미 공화당과 미 민주당의 대립이 지속된 영



서울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향이다. 예산 중단으로 안보 기능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들은 일시 해고됐다. 당초 미국 내에서는 섀다운이 2주 내 종료될 것이라 관측이 우세했지만, 섀다운은 기존 최장기록인 35일을 넘겨 40일간 지속 중이다.

미국내 고용시장이 악화중이라는 시장의 우려도 위험 자산 선호를 위축시켰다. 미 노동부는 매달 첫째 금요일 직전 월의 고용시장 상황을 담은 고용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의 고용정보업체 쉐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의 보고서는 지난달 15만3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2003년 이후 최대 하락을 기록했을 것으로 내다봤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중소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냉각 움직임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 무역협상 이후 국내 투자가 감

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무역협상에 따라 설정된 대미 투자액은 연간 200억달러로, 이는 지난해 대미 흑자액의 약 40%에 해당한다. 정부는 해당 재원을 외환 보유고 운용 수익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조달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140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내년도 관세 영향으로 인한 물가 압박이 본격화되고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진다면 미국 시장 금리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마찰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달러에의 강세 압박은 위험자산 투자의 불안을 의미하고, 달러가 해당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에서 쉽게 내려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외 달러 강세 지속 및 주변 통화 약세 속에서 원화의 상대 약세도 유지되고 있다”라면서 “원·달러 단기 급등으로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다소 제한적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반도체·조선 등 대형주 중심 급상승 전문가들 “실적 장세 이제부터 시작”

코스피 4000 시대

기업 실적 회복세… 고환율 등 변수

“뉴스에서 코스피 4000을 듣고 남편한테 우리집은 올해 주식으로 얼마 벌었냐고 물었더니...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나가버리네요.”(40대 주부 이모씨)

한국 증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스피 4000시대를 열었지만, 문턱을 오르내리고 있다. 일부 대형주만 오르고 나머지는 부진한 이른바 ‘대문자 K’ 장세가 이어지면서 돈맛을 보지 못한 투자자도 적지 않다.

시장에서는 ‘K증시’에 투자해야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 개미들이 여전히 많다. 전문가들은 한국증시가 여전히 ‘싸다’고 말한다.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우려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저평가됐다는 것이다.

◆ 코스피 상승 여력 충분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올해 64.77%(이하 7월 기준) 상승했다. 홍콩 항셍 지수(+30.81%), 독일 DAX 지수(+19.21%), 미국 나스닥종합 지수(+19.38%), 일본 니케이225 지수(+26.02) 등 주요국 증시 상승세를 압도적으로 제쳤다.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얘기는 달라진다. 2022년 말 대비 코스피는 76.79%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나스닥 종합 지수와 니케이225 지수는 각각 120.26%, 92.67%씩 올랐다. DAX 지수도 70.45% 가량 상승했다. 2022년 말 대비로는 주요국 증시 상승폭 대비 평균 혹은 평균을 다소 밑도는 수준인 것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의 올해 상승률은 압도적이지만 2022년 말 대비로는 주요국 증시와 키 맞추기 수준”이라며 “그동안 국내 경제 둔화, 정치 불확실성 및 중국 저가 공세 등으로 저평가됐던 국면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피가 오를 근거는 충분하다.

지수 상승의 뿌리인 기업 실적이 살아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내 3개사 이상 증권사가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247곳 중 147곳이 지난 7일까지 연결 실적을 발표했다. 이들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 총합은 59조2737억원으로 전망치인 55조9697억원을 5.9%가량 상회했다. 또

한 88곳(59.9%)이 컨센서스(시장평균 전망치)를 웃돌았거나 적자폭이 축소됐다.

장기적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조선, 방산, 기계 등이 실적 장세를 주도할 전망이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1.6배인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과 2026년 주당순이익(EPS) 성장률을 함께 그리면 코스피는 내년에도 큰 폭의 주당순이익(EPS) 성장이 전망되지만 밸류에이션은 낮다”고 덧붙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2025년, 2026년, 2027년 순이익 증가율 컨센서스는 28%, 28%, 12%에 달한다”며 “반도체 이익의 성장성을 감안할 경우 이익모멘텀이 더 강화될 여지가 크다”고 봤다.

기업들은 한국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추정한 한국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평균 1.9%를 기록했다. 이는 9월 말 평균(1.8%)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기업 실적이 살아나면서 ‘투자 확대→고용증가→소비 여력 확대→자본시장 투자확대’라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 ‘코스피 7500’ 전망, 외국인 ‘팔자’ 부담

KB증권은 지난 6일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가 장기 강세장을 지속할 경우에는 75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앞서 글로벌 투자는행(IB)인 모건스탠리와 JP모건 등이 ‘코스피 6000 시대’를 전망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내년 코스피의 영업이익은 반도체와 전력이 견인하며 전년 대비 36% 증가한 401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가 예상된다”면서 “코스피 상장 종목들의 호실적이 코스피 지수(목표치 5000선)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돌변한 외국인 태도다. 이달 들어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7조 7262억원어치를 팔았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근접해 상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이 일시에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단기적인 증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며 증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미국 연방 정부 섀다운 해소 여부,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엔비디아 실적 등의 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하의 기자 godhe@

흔들리는 부동산… 정책 불투명성 도마위

》1면 ‘6개월 만에 검한…’서 계속

부동산 정책방향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3차례 내놔지만 부동산 시장은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는 “집값을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고 했던 공약과 배치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한 유튜브 TV에 출연해 “보유세가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며 “취득·보유·양도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중과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아파트값 급등을 초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